알몸 되기 두려우면 복지는 없다

(신1:1~46)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알몸 되기 두려우면 복지는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알몸 되기 두려우면 복지는 없다'

제가 강릉에 내려와서 말씀을 인터넷 방송으로 전하게 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일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핸드폰이나 지갑을 몸에 지니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때에는 핸드폰이나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방송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집사람하고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자동차 키만 들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무의식중에 맨몸으로 나가면 제 핸드폰과 지갑이 집사람 가방에 담겨서 저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다보니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일을 보러 가게 될 때에는 양손에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핸드폰과 지갑을 지니는 것이 거북하고 몸과 따로 놀게 됩니다.

전에 TV에서 보면 이건희 씨가 공항에 내릴 때 보면 저처럼 맨몸입니다. 기내 가방은 물론이고 서류 가방 하나 손에 들지 않았고 핸드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 따르면서 핸드폰도 들고 필요하다면 기내 가방과 서류 가방도 들고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도대체 알몸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체(裸體)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을 말합니다. 비유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전에서 조차도 이 알몸에 대해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몸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를 알몸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갖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유로움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만 집사람과 함께 나갈 때에는 나는 지갑과 핸드폰을 몸에 지닐 필요가 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니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상태라면 이 알몸은 얽매임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없으면 두렵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늘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나갈 때에 맨몸으로 나가고 이건희 씨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닐 때에 맨몸으로 다닙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과 핸드폰이 없는 상태가 두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이 알몸이라는 단어 속에 이율배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몸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온 곳을 보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동산 수풀에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벗었으므로 창피한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닌데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맨몸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알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알몸 상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낙원을 사는 상태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알몸은 두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의 알몸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자 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 두렵습니다. 내가 학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벌이 없으니 두렵습니다. 외모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잇몸이 돌출되어서 못 생겼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행복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아가씨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떠듭니다. 자기 약점이 나올까 사람을 안 만나거나, 만나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점은 여호와 옆에 있으려면 반드시 알몸이어야 합니다. 알몸이 두려운 줄을 알게 된 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알몸이 두려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기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에덴동산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몸이기를 자유스러워하고 누리고 즐길 수 없으면 참 기쁨은 없습니다.
사탄과 한 배를 타면서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자기 판단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없는 알몸의 상태가 두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과 함께 살던 기쁨의 자리로부터 쫓겨납니다.
욥도 알몸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산과 열 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욥을 비난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때에 욥1:21~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본질적인 알몸 상태를 수용했기 때문이고, 욥이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잃고 난후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갖고 싶었던 것들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돈, 학벌, 건강, 형통, 승진, 자녀의 성공, 여자와 남자에 얽매이고 결혼에 얽매이고 모든 것에 얽매여 살다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알몸이 됩니다. 알몸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에덴을 회복되고 복지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알몸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하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상 것을 벗어야만 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죄사함으로 국한시키고 잘라버리고, 주님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사후에나 있을 일로 미뤄버리는 이유는 알몸이 두렵기 때문이고, 세상 가치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참 지긋지긋하게 질깁니다. 안 됩니다.
이 알몸 되는 일은 교황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총회장도 안 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생긴 가치들이 내게서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얽매여 사는데 이렇게 얽매여 있는 한 십자가는 받아들여 질 수가 없고 생활화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 세상 가치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곧바로 알몸을 만드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갈3: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상 것을 벗어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알몸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도 없고 복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는 것처럼 사람을 안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고, 여호와께서 안으실 수 있어야 에덴이 되고 복지가 되는데, 알몸을 두려워해서 자꾸 다른 것을 입으니 여호와께서 안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듣다듣다 신물 나는 옛날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모세가 또 합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 말씀을 믿지 못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38년 반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2세대인 너희가 1세대와 무엇이 달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출애굽’은 얽매여 살던 노예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복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의미는 뼛속까지 습성화 되어 얽매어 살던 노예적 근성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노예적 근성을 벗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 필요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습성을 벗는 것으로 알몸이 되는 것이고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를 도와줄 인맥이 없고, 직장이 없고, 배우자가 없고, 결혼할 가능성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마음에 얽매여 있다면 그 얽매여있는 줄까지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벗어버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지로 들어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

다. 복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복지는 이 세상 안에서 선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세상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있을 수 있는 자,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복지입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문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알몸 되기가 두려워서 실패합니다. 멸망이 두려운 이유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모리 사람들이 강탈해 가기 때문에 알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과 다른 점은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몸을 두려워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알몸 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해있으면 알몸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알몸인데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면 알몸을 선호하게 되고, 세상 쪽을 향해 있으면 알몸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는 마음이 있고 건강을 향해 있고 성공을 향해있고 부흥이나 예배당 건축을 향해있기 때문에 알몸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해 있으면 알몸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나갈 때에는 알몸이 두렵지만, 집사람하고 나갈 때에는 알몸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시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우리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지갑과 핸드폰을 자기 가방에 넣고 나와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닐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면서 나를 아들을 안듯이 안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하니 주님을 안으실 때에 나도 안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알몸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노후대책이 알몸이라면 즐기세요. 저희 집사람이 제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대책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방 안에 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와 동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안고 가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가방 속에 넣어 두고 계시는데, 내가 이 세상 것이 알몸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 준비하고 걸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안으실 수도 없습니다.

에덴은 '알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복지는 '알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복지는 타락 후에 주어진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알몸을 두려워하는 상태이며 무언가를 걸치고 있는 상태이고 얽매인 상태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내일 집사람이 가방 안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고 따라 오듯이,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자리인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는 아들딸 되는 권세를 주신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가시면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31~32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해 알몸 되기를 두려워해서 세상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가 함께 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내가 다 챙기겠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출애굽 1세대가.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는 복지를 에덴으로 기쁨과 감사의 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1세대처럼 세상 것을 잃고 알몸이 될까 두려워하는 얽매임을 극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몸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걸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더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알몸이 되게 하세요. 승천의 자리까지 가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세요. 아예 마음으로 쳐다보질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없어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를 붙잡고 쳐다보지 말고 알몸으로 남아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자녀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행하실 것인데, 이 말까지도 일단 한 번 믿었으면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나 쳐다보다가 또 세상에 얽매이게 되니, 그렇게 믿었으면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향해서 알몸 되기를 즐겨하며 자유를 누릴 때에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몸!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알몸 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므로 알몸 됨을 선호하는 선민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